

## 녹색기후기금: 누가 얼마나 공약했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몽골, 모나코, 파나마 등 공약 액수 90억 달러 상회

2014.11.20 /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거의 100억 달러 이상을 약속했다. 녹색기후기금은 오늘(11.20) 베를린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기후 재정 금고를 거의 채우게 되었다.

다음은 이제까지 각국이 공약한 내용이다. 액수는 달러로 환산하여 표기하며, 공약과 함께 발표된 기타 사항을 짧게 덧붙인다.

### 미국

액수: 30억 달러

비고: 총 공약 액수의 30%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 일본

액수: 15억 달러

비고: 국회 승인 필요

### 영국

액수: 11억2천6백만 달러

### 프랑스

액수: 10억3천5백만 달러

비고: 차관 2억2천5백만 유로, 완충자본(capital cushion) 5천5백만 유로

\*capital cushion: 손실에 대비한 자기자본금

### 독일

액수: 9억4천만 달러

비고: 무상증여 전액(7억5천만 유로)

### 스웨덴

액수: 5억8천만 달러

비고: 무상증여 40억 스웨덴 크로나는 의회 승인 필요

### 이탈리아

액수: 3억1천3백만 달러

비고: 무상증여 2억5천만 유로

### 네덜란드

액수: 1억3천4백만 달러

비고: 4년에 걸쳐 무상증여 형식

### 노르웨이

액수: 1억3천만 달러

비고: 무상증여이며, 기존 기후 재정에 추가되는 형식임

[번역\_GCF에 대한 국가들의 재정 공약 내용]

**한국**

액수: 1억 달러

비고: 무상증여로 2018년 까지 지급

**스위스**

액수: 1억 달러

비고: 2015-17년까지 3번에 걸쳐 분납

**핀란드**

액수: 1억 달러

비고: 무상증여 8천만 유로는 의회 승인 필요

**덴마크**

액수: 7천1백6십만 달러

비고: 무상증여

**스페인**

액수: 1천6백3십만 달러

비고: 현금보조(cash grant) 1천3백만 유로 지급 후 다년에 걸친 무상증여

**멕시코**

액수: 1천만 달러

**룩셈부르크**

액수: 6백3십만 달러

비고: 5백만 유로(공약 당시 통화)

**체코**

액수: 5백5십만 달러

**뉴질랜드**

액수: 3백만 달러

**파나마**

액수: 1백만 달러

**모나코**

액수: 3십1만2천 달러

**몽고**

액수: 5만 달러

**폴란드**

연내 발표

**캐나다**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

[번역\_GCF에 대한 국가들의 재정 공약 내용]

총

9십1억 7천만 달러

출처 = <http://www.rtcc.org/2014/11/20/green-climate-fund-who-pledged-what/>